

**군무원 필기 + 면접 전문 대장부 학원**

빠르게 정답만 확인하기 위해 해설을 간략하게 적었습니다. 보다 상세한 해설은 다음 주에 올라갑니다. 감사합니다.

쉬운 문제는 바로 풀 수 있을 정도로 쉬웠다.

다만, 비문학 독해 문제에서 시간을 초과해서 풀게

만든 문제들이 4~5문제 정도 있었다.

고득점의 향방이 위 4~5 문제에서 판가름 날 것 같다.

1. 다음 중 발음의 표기가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뿔는[뿔는]
- ② 뉘다[닐따]
- ③ 끝으로[끄츠로]
- ④ 젓먹이[젓머기]

[해설] 정답 ② 표준 발음법 제10항 겹받침 'ㄱ', 'ㄴ', 'ㄷ', 'ㄹ', 'ㅂ', 'ㅅ', 'ㅇ'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각각 [ㄱ, ㄴ, ㄷ, ㄹ, ㅂ, ㅅ, ㅇ]으로 발음한다. '뉘다'는 [닐따]로 발음합니다.

① 뿔는[뿔는] 제20항 'ㄴ'은 'ㄹ'의 앞이나 뒤에서 [ㄹ]로 발음한다. 첫소리 'ㄴ'이 'ㄹ', 'ㅂ' 뒤에 연결되는 경우에도 이에 준한다.

③ 끝으로[끄츠로] 제13 항 홑받침이나 쌍받침이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나 어미, 접미사와 결합되는 경우에는, 제 음가대로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

④ 젓먹이[젓머기] 제21항 위에서 지적한 이외의 자음 동화는 인정하지 않는다.

2. 다음 중 띄어쓰기가 틀린 것은?

- ① 집 밖에 눈이 쌓였다.
- ② 공부 밖에 모르는 학생이군.
- ③ 맨손으로 땅을 폈다.
- ④ 한겨울에 얇은 옷만 입을 체,

[해설] 정답 ② '공부밖에 모르는 학생이군' 처럼 붙여쓰기를 해야 한다. '밖에'는 '그것 말고는', '그것 이외에는'의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로 주로 뒤에 부정을 나타내는 말이 따른다.

3. 다음 중 형태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홀로 설 수 있는 말의 단위
- ② 뜻을 구별하는 소리의 최소 단위
- ③ 의미를 가진 가장 작은 말의 단위
- ④ 끊어 읽기의 단위

[해설] 정답 ③ 형태소란 문법 단위 중 의미를 가진, 가장 작은 단위이다. '의미를 가진'의 뜻은 어휘적 의미나 문법적 의미를 지녀야 한다는 뜻이다.

- ① 조사: 홀로 설 수 있는 말의 단위이다.
- ② 음소: 구별하여 주는 최소의 단위이다.
- ④ 어절: 끊어 읽기의 단위이다.

4. 아래의 밑줄 친 단어 중 맞춤법에 어긋난 것은?

- ① 설거지는 내가 할게.
- ② 파란불이 빨간불로 바뀌었다.
- ③ 잠시 후 산등성이가 보였다.
- ④ 저기에 돌무더기가 쌓여 있어요.

[해설] 정답 ② 파란불이 빨간불로 바뀌었다. 동사 '바뀌다'에 과거를 뜻하는 말인 '-었'을 합치면 '바뀌었다'가 아니라 '바뀌었다'가 되어야 맞는 표현이다.

5. 다음 낱말 중 맞춤법이 틀린 것은?

- ① 깨끗히
- ② 가득히
- ③ 조용히
- ④ 고스란히

[해설] 정답 ① '깨끗이'가 올바른 표기다. 한글 맞춤법 제51항 부사의 끝음절이 분명히 '이'로만 나는 것은 '-이'로 적고, '히'로만 나거나 '이'나 '히'로 나는 것은 '-히'로 적는다.

6. 다음 문장 중 문장 성분 간의 호응이 가장 자연스러운 것은?

- ① 오늘은 잔디밭에서 책과 그림을 그렸다.
- ② 사람은 모름지기 욕심을 다스릴 줄 안다.
- ③ 이번 연극에서 영희는 주인공 역할을 맡았다.
- ④ 그녀는 초보치고는 운전을 썩 잘하지는 못한다.

[해설] 정답 ③ 호응이 가장 자연스러운 문장이다. 나머지 선지는 아래처럼 고쳐야 한다.  
① 오늘은 잔디밭에서 책을 읽고 그림을 그렸다.  
② 사람은 모름지기 욕심을 다스릴 줄 알아야 한다.  
④ 그녀는 초보치고는 썩 운전을 잘한다.  
치고: '그중에서는 예외적으로'의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  
썩: 보통의 정도보다 훨씬 뛰어나게.

7. 다음 중 밑줄 친 부분의 설명이 적용될 수 있는 예로 가장 적절한 것은?

우리말 표현 중에는 문장의 의미가 두 가지 이상으로 해석될 수 있어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다. 그 중 하나가 비교 구문에서 나타나는 중의성(重義性)인데, 이는 비교 대상을 분명하게 하지 않아 발생하는 현상이다.

- ① 나는 내일 철수와 선생님을 만난다.
- ② 결혼식장에 손님들이 다 들어오지 않았다.
- ③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의 그림을 어루만졌다.
- ④ 글썩, 남편은 나보다 축구 중계를 더 좋아한다니까.

[해설] 정답 ④ 남편과 아내 모두 축구 중계를 좋아하지만 남편이 더 좋아한다는 의미와 남편은 축구 중계를 아내보다 더 좋아한다는 의미로도 해석이 된다.

① 연결 관계에 따른 중의성이다.

‘나는 철수와’ 함께 선생님을 만난다는 것인지 아니면 나 혼자 철수, 선생님을 만난다는 것인지가 불분명하다.

② 부정문의 중의성이다.

손님들 전체가 들어오지 않았다는 것인지, 아니면 일부만 들어오지 않았다는 것인지가 불분명하다.

③ 조사 ‘의’ 중의성이다.

그림이 아버지께서 그린 그림인지, 아버지께서 소유한 그림인지, 아버지를 그린 그림인지 불분명하다.

[해설] 정답 ④ 누이의 죽음으로 인한 두려움과 슬픔, 무상감을 불교적 신앙심을 바탕으로 극복하고자 하고 있다. 극락세계를 의미하는 ‘미타찰’에서 재회하고자 하는 염원이 있다.

① 10구체 향가이다.

② 가을의 때 이른 바람에 떨어지는 잎(하강적 이미지)처럼 누이도 그렇게 젊은 나이에 죽음을 암시하고 있다.

③ 죽은 누이의 명복을 빌면서 극락 세계에서 왕생하기를 염원하고 있다.

8. 다음 중 괄호 안에 들어갈 우리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어둠 속에 눈을 뜬 강실이한테 무참히 끼쳐 든 것은 생전 처음 맞닥뜨린 낯섦의 스산하고 ( ) 기운이었다. - 최명희, <혼불>

- ① 성마른
- ② 돈바른
- ③ 살천스러운
- ④ 암상스러운

[해설] 정답 ③ 살천스럽다: 째짤하고 매섭다.

① 성마르다: 참을성이 없고 성질이 조급하다.

② 돈바르다: 성미가 너그럽지 못하고 까다롭다.

④ 암상스럽다: 보기에 남을 시기하고 썸을 잘 내는 데가 있다.

9. 다음 중 밑줄 친 ㉠, ㉡과 이 작품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생사(生死) 길은  
에 있으며 머뭇거리고,  
나는 간다는 말도  
묻다 이르고 어찌 갑니까.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이에 저에 떨어질 잎처럼  
한 가지에 나고  
가는 곳 모르온저.  
㉡아아, 미타찰(彌陀刹)에서 만날 나  
도(道) 닦아 기다리겠노라.

- 월명사(김완진 해독), 「제망매가」

- ① 이 작품은 신라시대의 향가 중 한 편이다.
- ② ㉠은 하강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누이의 죽음을 상징적으로 드러낸다.
- ③ 죽은 누이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작품이다.
- ④ ㉡은 누이의 죽음에 의한 슬픔에서 벗어나고자 욕망으로 가득한 현실적 공간을 제시한다.

10. 다음은 탐골공원에 대한 실태 보고서의 목차이다. ㉠~㉣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서론
2. 탐골공원의 지리적 조건
  - 1) 교통편과 주차 시설
  - 2) ㉠편의 시설과 주변 상가
  - 3) ㉡인근 공원의 위치와 거리
3. 탐골공원 이용객의 실태
  - 1) 연령대별 이용 시간
  - 2) ㉢선호하는 공원 시설 및 행사
  - 3) ㉣노약자를 위한 시설 관리 대책
4. 결론

- ① ㉠
- ② ㉡
- ③ ㉢
- ④ ㉣

[해설] 정답 ④

3. 탐골공원 이용객의 실태에 대한 항목이다. ㉣은 노약자를 위한 공원 내 시설 관리 대책이기 때문에 어울리지 않는다. ㉢은 탐골공원 내 시설의 문제점, 노후화의 해결책 항목에 어울리는 내용이다.

11. ㉠~㉣에 알맞은 말은?

비슷한 나이의 동료끼리 말을 주고받을 때는 ‘홍길동 씨, 경리과에 전화했어요?’, ‘이 과장, 거래처에 다녀왔어요?’처럼 ‘해요체’를 주고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 ㉠ ) 같은 동료라 하더라도 상대방의 나이가 위이거나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합쇼체’를 써서 말할 필요가 있다. 곧 ‘홍길동 씨, 경리과에 전화했습니까?’, ‘이 과장, 거래처에 다녀왔습니까?’ 하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윗사람과 말을 주고 받을 때에는 반드시 ‘합쇼체’를 써서 ‘이번 일은 제가 맡아 처리하겠습니다’와 같이 말해야 한다.

( ㉡ ) 가정에서라면 아랫사람과 대화를 주고받을 때는 상대방을 높이지 않기 때문에 ‘해체’나 ‘해라체’ 정도를 사용할 수 있지만 직장에서는 사정이 조금 다르다. 아무리 자신보다 아랫사람이라 하더라도 가족 관계에서와는 달리 어느 정도 높게 대우해 주어야 하는 것이다. ( ㉢ ) 과장이 자신의 부하 직원에게 말할 때 ‘홍길동 씨, 업무 계획서 좀 빨리 작성해 줘요.’ 하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아랫사람이 자신보다 매우 어리거나 친밀한 사이일 경우에는 ‘홍길동 씨, 업무 계획서 좀 빨리 작성해 줘’ 하고 존대의 효과가 없는 ‘해체’를 사용할 수도 있고 ‘하계체’를 사용하여 상대를 조금 대우해 줄 수도 있다.

- ① ㉠ 그러나 ㉡ 한편 ㉢ 그래서
- ② ㉠ 그러나 ㉡ 한편 ㉣ 그리고
- ③ ㉠ 그리고 ㉡ 따라서 ㉣ 그래서
- ④ ㉠ 그리고 ㉡ 따라서 ㉣ 그러나

[해설] 정답 ①

㉠앞에서는 비슷한 나이의 동료들과 대화할 때이고 ㉠의 뒷부분에서는 나이가 위거나 공식적인 자리라면 달라질 수 있다는 내용이다. 따라서, ㉠은 ‘그러나’가 적절하다.

여기까지가 직장 내 예시였고, ㉡뒷부분부터는 가정의 경우이다. 따라서, ㉡에는 ‘한편’이 적절하다.

자신보다 아랫사람이라도 가정이 아닌 직장이라면 어느 정도 대우해줘야 한다고 말하고 있으므로 ㉢에는 ‘그래서’가 적절하다.

12. 다음 중 밑줄 친 ㉠~㉣의 한자음이 잘못 연결된 것은?

우리는 어떤 行爲가 ㉠行爲者의 ㉡自由意志에 의한 것일 때에 그 行爲에 대해 道德的 ㉢責任을 물을 수 있다고 여긴다. 그렇다면 自由意志에 의한 行爲인지의 ㉣與否를 가리는 基準은 무엇일까?

- ① ㉠ 行爲者-행위자
- ② ㉡ 自由意志-자유지사
- ③ ㉢ 責任-책임
- ④ ㉣ 與否-여부

[해설] 정답 ② 자유의지(自由意志)

自 스스로 자 由 말미암을 유 意 뜻 의 志 뜻 지

13. 다음 중 밑줄 친 말을 대신할 수 있는 사자성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앞서 도공은 지난 주 경영회의에서 고속도로 통행료 전자 지불시스템으로 기존 전자화폐나 교통카드 겸용 신용 카드 대신 새로운 스마트 카드를 도입하고 이의 발급을 도공 자신이 주관키로 결정했다. 도공 관계자는 20일 “기존 전자화폐 5종의 경우 우열을 가리기 힘들고 교통카드 겸용 신용카드도 각 지역별로 호환이 안 되는 상황에서 한 해 2조원에 달하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공사가 직접 관리, 운용하는 편이 충실한 경영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 ① 막역지우(莫逆之友)
- ② 백중지세(伯仲之勢)
- ③ 난형난제(難兄難弟)
- ④ 막상막하(莫上莫下)

[해설] 정답 ① 막역지우 ‘서로 거스름이 없는 친구’라는 뜻.

백중지세, 난형난제, 막상막하는 모두 우열을 가리기 힘들다라는 의미다.

14. 다음 중 빈칸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문학 작품은 다양한 내적 요소들의 결합으로 구성되면서 외적으로 작가의 맥락, 사회·문화적 맥락, 문학사적 맥락, 상호 텍스트적 맥락과 연계된다. 문학작품의 이해·감상·평가는 수용자가 내적 요소들의 결합관계를 분석하고 다양한 외적 맥락을 함께 고려하며 이루어진다.

작가의 맥락은 작품을 창작한 작가와 문학작품의 관계를 말한다. 작가의 생애나 작가가 경험한 특정한 사건이 작품에 반영되고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어 정지용의 시 「유리창」에는 어린 자식을 잃은 정지용의 가정사가 반영되어 있다.

사회·문화적 맥락은 문학작품에 반영된 사회·문화적 상황과 문학작품의 관계를 말한다.

문학사적 맥락은 문학과 문학 작품의 관계를 말한다.

㉠( ) 문학작품 사이의 관계를 말한다. 하나의 작품을 다른 작품과의 연관성 속에서 파악할 수 있을 때 상호 텍스트성이 나타난다.

- 「고등학교 문학」

- ① 상호 텍스트적 맥락은
- ② 문학 작품의 이해는
- ③ 문학 작품의 내적 맥락은
- ④ 문학 작품의 비평은

[해설] 정답 ① 문학 작품은 외적으로 작가의 맥락, 사회문화적 맥락, 문학사적 맥락, 그리고 ㉠에 들어갈 상호 텍스트적 맥락과 연계된다고 말하고 있다.

15. 다음 중 빈칸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최근 환경오염에 기인하는 생태계의 파괴와 새롭게 개발된 생명과학 기술이 점차 인간의 삶과 그 존엄성을 위협하게 됨에 따라, 생명과학에 대한 세상의 관심도 높아졌고 그것이 갖는 도덕성도 심심찮게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생태계의 파괴와 관련하여 생명과학이 주목을 받는 것은 생태계 파괴의 주범이 생명과학이어서가 아니라, 이미 심각한 상태로 파괴된 생태계를 복원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을 생명과학이 제시할지도 모른다는 기대 때문이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생명과학의 도덕성에 대한 논의는 생명과학이 개발해 내고 있는 각종 첨단 기술이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의 표출인 것이다. 다른 모든 과학과 마찬가지로 생명과학도 ( ㉠ )을 지니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과학이 갖는 무한한 가능성에 대하여 큰 기대를 걸면서도 동시에 그것이 갖는 가공할 만한 위험성을 항상 경계하고 있는 것이다.

- ① 개연성                      ② 합리성
- ③ 양면성                      ④ 일관성

[해설] 정답 ③ ㉠ 뒷 문장에 보면 생명과학은 무한한 가능성, 그리고 위험성이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생명과학이 지닌 양면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16. 아래의 설명에 가장 부합하는 문장을 고르시오.

부사는 주로 뒤에 오는 용언을 꾸며 줍니다. 그런데 부사 중에는 ‘다행히 우리는 기차를 놓치지 않았다.’의 ‘다행히’처럼 문장 전체를 꾸며 주면서 말하는 사람의 심리적인 태도를 나타내는 종류도 있어요

- ① 설마 학교에 가지 않은 건 아니지?
- ② 차가 빨리 달린다.
- ③ 공을 멀리 던졌다.
- ④ 책이 가지런히 놓여 있다.

[해설] 정답 ①

문장 전체를 꾸미는 부사인 문장부사는 양태 부사가 있는데, 지문은 이에 대한 설명이다.

17. 다음 글이 <보기>의 ㉠~㉣ 중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곳은?

서양인이나 증동인은 해부학적으로 측면의 얼굴이 인상적인 이미지를 남긴다. 그래서 서양미술에서는 사람의 측면만 그리는 ‘프로필(프로파일)’이라는 미술 장르가 발달했다. 프로필이라는 말이 인물 소개를 뜻하게 된 것도 이때문이다.

<보 기>

어떤 이집트 그림에서는 사람의 얼굴은 측면, 눈은 정면, 목은 측면, 가슴은 정면, 허리와 발은 측면으로 그려지곤 한다. 인간의 신체가 자연 상태에서 이렇게 보이는 경우란 있을 수 없다. 해부학적으로 불가능한 자세인 것이다.

그럼에도 이 그림을 처음 볼 때 우리는 별로 어색한 느낌이 들지 않는다. 왜 그럴까? 그것은 신체의 각 부위가 그 특징이 가장 잘 드러나는 부분 위주로 봉합되어 있기 때문이다. 넓은 가슴이나 눈은 정면에서 보았을 때 그 특징이 잘 살아난다. ( ㉠ )

이렇게 각 부위의 중요한 면 위주로 조합된 인체상은 이상적인 부분끼리의 조합이므로 완전하고 완벽하며 장중한 형상이라는 느낌을 준다. 그러니까 흠 없는 인간, 영원히 썩지 않고 스러지지 않을 초월적 존재라는 인상을 준다. ( ㉡ )

이집트 그림에서는 신과 파라오, 귀족만이 이렇게 그려지고 평범한 사람들은 곧잘 이런 법칙과 관계없이 꽤 사실적으로 그려졌다. ( ㉢ ) 이는 신과 파라오, 나아가 귀족은 오로지 ‘존재하는 자’이고, 죽을 운명의 범인들은 그저 ‘행위하는 자’라는 생각이 반영된 것이다.

범인들이 일하는 모습을 그릴 때 사실적으로, 그러니까 얼굴이 측면이면 가슴도 측면으로 자연스럽게 그리는 것은, 그들은 썩어 없어질 ‘찰나의 인생’이기 때문이다. ( ㉣ ) 반면 고귀한 신분은 삼라만상의 변화와 관계없이 영원한 세계의 이상을 반영하는 존재이므로 이상적 규범에 따라 불변의 양식으로 그려진다.

- ① ㉠                              ② ㉡
- ③ ㉢                              ④ ㉣

[해설] 정답 ① 이주현 작가의 “신화, 그림으로 읽기”란 책의 일부분이다. 2문단에서 신체의 각 부위가 그 특징이 잘 드러나는 부분 위주로 봉합되어 있기에 그 그림을 어색하게 생각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다. ㉠의 뒷 부분에 각 부위의 중요한 면은 1문단에서 언급한 “얼굴은 측면, 눈은 정면, 목은 측면, 가슴은 정면” 등을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자연스러운 연결은 ㉠에 들어가야 한다. 또한, 3문단 ~ 5문단은 문맥적으로 매끄럽게 표현이 되어 있다.

다만, 원문을 확인해야 정확하게 알 수가 있겠지만 전반부 내용에 생략(중략)된 내용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전형적인 군무원 국어 시험의 중간 내용은 생략하고, 다음 문장을 보여주면서 들어가기에 적절한 문장을 찾으라는 문제인 듯하다. 그렇다보니 매끄럽게 글의 전개가 되지 않는 모양새다. 이로 인해 수험생분들이 혼란을 겪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18. 다음 글에 나타나지 않는 수사법은?

불안인지 환희인지 모를 것으로 터질 듯한 마음을 부채질하듯이 별판의 모든 곡식과 푸성귀와 풀들도 축 늘어졌던 잠에서 깨어나 일제히 웅성대며 소요를 일으킨다. 그러나 소나기의 장막은 언제나 우리가 마을 추녀 끝에 몸을 가리기 전에 우리를 덮치고 만다. 채찍보다 세차고 폭포수보다 시원한 빗줄기가 북더위와 달음박질로 불화로처럼 단 몸뚱이를 사정없이 후러치면 우리는 드디어 폭발하고 만다.

- 박완서,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

- ① 역설법
- ② 과장법
- ③ 직유법
- ④ 활유법

[해설] 정답 ① 역설법이란 모순되거나 논리에 맞지 않는 표현이지만 그 속에 의미를 지니고 있는 수사법인데 지문에는 찾아볼 수가 없다.

② 과장법: 사물이나 사실을 실제보다 지나치게 크거나 작게 표현하여 문장의 효과를 높이는 수사법. 소나기를 폭포수로 표현하고 있다.

③ 직유법: 비슷한 성질이나 모양을 가진 두 사물을 ‘~같이’, ‘~처럼’, ‘~듯이’ 와 같은 연결어로 결합하여 직접 비유하는 수사법.

④ 활유법: 무생물을 생물인 것처럼, 감정이 없는 것을 감정이 있는 것처럼 표현하는 수사법.

19.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명품’이라는 말은 ‘대통령’이라는 말이 어치구니없는 오해를 빚어내는 것과 같다. ‘대통령’은 원래 ‘president’를 번역하면서 생겨난 말인데, 이 원어는 라틴어로 ‘앞’이라는 뜻의 ‘pre-’와 ‘앉아 있다’라는 뜻의 ‘sidere’의 합성어이다. 다시 말해 민주주의를 뜻하는 ‘회의 석상에서 앞에 앉아 있는 사람’이라는 ‘president’가 대통령, 즉 ‘국가의 통치 문제에 있어서 가장 큰 명령을 내리는 사람’으로 번역되면서 아직도 전체 정치의 특징인 ‘통치권’이 우리 정치 사회를 흔들고 있는 원인이 되고 있다.

마찬가지로 돈이 되기만 하면 달려드는 상업주의 장사꾼들과 시청률과 구독률만을 높이기만 하면 된다는 언론의 합작품인 ‘명품’이라는 용어를 국민들이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우리의 건전한 소비의식이 병들게 된 것이다. 그래서 예코는 기호학을 정의하면서 “거짓말을 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는 모든 것을 연구하는 학문 분야”라고 하였나 보다.

- ① 예코의 말은 과장에 해당한다.
- ② ‘명품’이라는 말은 잘못된 번역어이다.
- ③ 일부 기업과 언론의 행태를 비판하고 있다.
- ④ ‘비교’에 해당하는 설명 방식을 활용하였다.

[해설] 정답 ② ‘명품’이라는 단어의 어원이나 번역을 밝히고 있지는 않다. 대통령이라는 말은 ‘president’를 번역하면서 생겨났는데 그 어원을 따져보면 지금의 ‘대통령’이라는 단어는 적절치 않다는 것이 글쓴이의 생각이다. 아마도 글쓴이는 ‘의장’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 것 같다.

20. 다음 중 (가)~(다)를 문맥에 맞는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사회 문제의 종류와 내용 및 그에 대한 관념은 시대와 사회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운명론을 예로 들어보자. 운명론은 한마디로 개인의 고통과 사회적 불평등을 하늘의 뜻으로 또는 당연히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이는 태도이다.

(가) 이러한 상황에서는 사람들이 겪는 고통이 ‘사회 문제’의 관념으로 발전하기 어렵다. 결과적으로 전통 사회에서는 기존 질서의 유지가 가장 중요한 사회적 관심사가 되고 따라서 ‘규범의 파괴’가 가장 핵심적인 사회 문제로 떠오르게 된다.

(나) 한편, 오늘날 우리가 갖게 된 사회 문제의 관념은 운명론의 배경을 전제로 한다. 그것은 우선 사람의 고통은 여러 사람 공동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 그것이 개인의 책임이 아니고 사회 제도와 체제의 책임이라는 관념, 나아가 모든 사람은 인간적인 대우를 받을 가치가 있다는 인식의 확산 없이는 이루어지지 못한다.

(다) 따라서 운명론이 지배하는 사회에서는 개인이나 특정 집단이 겪는 고통은, 그것이 심한 사회적 통제와 불평등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사회의 잘못이 아닌 그들 개개인의 탓으로 돌려진다. ‘가난은 나라도 구제할 수 없다’는 생각이 그 단적인 예에 속한다.

- ① (나) → (가) → (다)
- ② (나) → (다) → (가)
- ③ (다) → (가) → (나)
- ④ (다) → (나) → (가)

[해설] 정답 ③ 전체적으로 운명론에 대한 내용이다. (나)에서는 오늘날 운명론의 배경을 전제로 사회 문제의 관념을 바라보고 있음을 말하고 있다. ‘한편’이라는 단어를 통해 앞에서 말한 측면과 다른 측면을 말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따라서 (나)를 마지막 순서로 두는 것이 적합하다.

21. 다음 중 외래어 표기가 잘못된 것은?

- ① 집에 가는 길에 슈퍼마켓에 들러 휴지를 샀다.
- ② 생일을 맞은 친구에게 축하 메시지를 보냈다.
- ③ 동네 아이들이 길가에서 초콜릿을 나눠 먹고 있었다.
- ④ 요즘에는 디지털보다 오히려 아날로그 감성이 인기이다.

[해설] 정답 ② ‘메시지’가 올바른 표기다.

‘message’는 [mesɪdʒ]로 발음. 외래어 표기법 제2장에 따라 [ɪ] 발음은 ‘ㅣ’로 적어야 하므로, ‘메세지’가 아니라 ‘메시지’로 표기한다.

22. 다음 작품과 주제 및 정서가 가장 비슷한 것은?

흥진에 못친 분네 이내 생애 엇더흔고  
 넷 사람 풍류롤 미출가 못 미출가  
 천지간 남자 몸이 날 만흔 이 하건마는  
 산림에 못쳐 이서 지락을 므롤 것가  
 수간모옥을 벽계수 얹피 두고  
 송죽 울울리에 풍월주인 되여서라  
 엇그제 겨울 지나 새봄이 도라오니  
 도화행화는 석양리에 켜여 있고  
 녹양방초는 세우 중에 프르도다  
 칼로 몰아 낸가 붓으로 그려낸가  
 조화신공이 물물마다 현스럽다  
 수풀에 우는 새는 춘기롤 못내 계워  
 소리마다 교태로다  
 물아일체어니 흥이인 다툼소나  
 시비에 거러 보고 정자에 안자 보니  
 소요음영하야 산일이 적적흔디  
 한중진미를 알 니 업시 호재로다

- ① 오백 년 도움지를 필마로 도라드니  
 산천은 의구호되 인걸은 간 되 업다  
 어즈버 태평연월이 씌이런가 호노라
- ② 수양산 바라보며 이제롤 한호노라  
 주려 주글진들 재미도 호는 것가  
 비록애 푸새엿 거신들 괴 뉘 짜해 낫드니
- ③ 청산은 엇데하야 만고애 프르르며  
 유수는 엇데하야 주야애 굶디 아니는고  
 우리도 그티디 마라 만고상청호리라
- ④ 십 년을 경영하야 초려삼간 지여 내니  
 나 혼 간 돌 혼 간애 청풍 혼 간 맞져 두고  
 강산은 들일 되 업스니 둘러 두고 보리라

[해설] 정답 ④ 주어진 작품은 ‘상춘곡’이다. 자연 속에서 봄을 맞이하는 자연 친화적 삶과 소박한 가운데 즐거움을 누리는 안빈낙도의 삶이 잘 드러나 있다.

- ① 작품은 고국인 고려의 멸망에 대한 슬픔, 탄식을 형상화한 작품이다.
- ② 작품은 성삼문의 시조로 임금을 향한 굳은 절개를 드러낸 작품이다.
- ③ 작품은 이항의 시조로 자연의 불변성을 본받아 끊임없는 학문 수양을 다짐하는 작품이다.

23. 다음 인용문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근대 이후 역사학자들은 역사의 거대한 흐름을 서술하는 것을 주된 과제로 삼았다. 즉, 거시적인 전망에서 경제·사회 구조의 변화과정을 포괄적으로 서술하는 것을 목적으로 여겼다. 따라서 특정 지역의 역사를 자본주의 경제의 확립이나 민족국가의 성립과 같은 어떤 목표점을 향해 전개되어 온 도정으로 서술하거나, 장기간에 걸쳐 완만하게 변화하는 사회 경제 질서와 그 표면에서 거품처럼 끓어오르는 정치권력의 흥망성쇠를 입체적으로 기술한 것이 역사 서술의 주류를 형성해 왔다. 20세기 후반에 등장한 역사 서술인 미시사(微視史)는 이러한 역사 서술이 보통 사람들의 개별적인 삶을 통계수치로 환원하여 거시적인 흐름으로 바꿔 버리거나 익명성의 바다속으로 사라지게 한다고 비판한다.

- ① 이 글에는 역사를 바라보는 서로 상반된 입장이 나타난다.
- ② 종래 역사 서술의 주류를 형성해 온 것은 거시적인 전망에서 역사의 거대한 흐름을 서술하는 입장이었다.
- ③ 미시사적인 역사 서술은 보통 사람들의 개별적인 삶을 통계수치로 환원시켜 익명성의 바다 속으로 사라지게 한다.
- ④ 거시적인 역사 서술은 특정 지역의 역사를 어떤 목표점을 향해 전개되어 온 도정으로 서술한다.

[해설] 정답 ③ 종래 역사 서술이 보통 사람들의 개별적인 삶을 통계수치로 환원시켜 익명성의 바다 속으로 사라지게 할 것이라고 ‘미시사’가 비판한 것이다.

- ① 역사는 연구와 서술 범위에 따라 ‘거시사’와 ‘미시사’로 구분한다. 종래 역사 서술의 주류가 ‘거시사’이고 20세기 후반에 등장한 것이 ‘미시사’다.
- ② 첫째 줄 ~ 넷째 줄까지 나타나 있다.
- ④ 위에서 6번째 줄 ~ 7번째 줄에 나타나 있다.

(24~2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우리는 건축가가 된 다음에 집을 짓거나, 거문고 연주가가 된 다음에 거문고를 타게 되는 것은 아니다. 집을 지어봄으로써 건축가가 되고, 거문고를 타봄으로써 거문고 연주가가 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옳은 행위를 함으로써 옳게 되고, 절제 있는 행위를 함으로써 절제 있게 되며, 용감한 행위를 함으로써 용감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 실천은 성향이 되고 성향은 습관이 될 때 비로소 성품이 탄생하게 되는 것이다. 남과 사귀는 과정에서 우리가 늘 행하는 행위에 의해 우리는 올바른 사람이 되거나 옳지 못한 사람이 되며, 또 위험과 맞닥뜨렸을 때 무시위하거나 태연한 마음을 지니거나 하는 습관을 얻게 됨으로써 혹은 용감한 이가 되고 혹은 겁쟁이가 된다. 욕망이나 분노 같은 것도 이와 마찬가지로, 즉 자기가 당한 처지에서 어떻게 행동하는가에 따라, 절제 있고 온화한 사람이 되기도 하고 혹은 방종하고 성미 급한 사람이 되기도 한다.

24. ㉠에 들어갈 문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바늘허리에 실을 매어 쓸 수는 없다.
- ②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는 법이다.
- ③ 산에 가야 범을 잡고 물에 가야 고기를 잡는다.
- ④ 제비가 한 마리 날아왔다고 봄이 오는 것이 아니다.

[해설] 정답 ④ 성품은 인간에게 본성적으로 갖추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부단한 실천을 통한 '습관'의 결과로 형성되는 것이다. '제비가 한 마리 날아왔다고 봄이 오는 것이 아니다' 라는 말처럼 속단(速斷)하지 말고 꾸준히 노력해야 함을 말하고 있다. 다음 문제인 이 글의 제목과 일맥상통한다.

25. 위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상황 판단의 합리성
- ② 올바른 성품의 중요성
- ③ 실천과 습관의 중요성
- ④ 자기반성과 자아실현의 의의

[해설] 정답 ③ 24번 문제에서 말한 것처럼 실천과 습관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 모두 애쓰셨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길 기도하겠습니다 \*

## 2024 군무원 면접 합격!

군무원 전문 강사진, 직렬별 맞춤형 교육

### 군무원 대장부 면접

1차 얼리버드반(선행반) 7월 22일 월요일부터 면접 신청 접수,  
 평일반: 7월 24일 오후 2시 면접 교육 시작  
 주말반: 7월 27일 오후 2시 면접 교육 시작

2차 정규반 8월 19일 필합 발표일에 면접 신청 접수,  
 (자소서 첨삭 교육, 서류 제출 -> 면접 교육 시작)

신청 | 학원 홈페이지 > 면접 신청 게시판

군무원 전문 대장부 학원

<http://daejangbu.com/> 02-849-7746

### 2024 군무원 면접 커리큘럼

회차	면접 교육 내용
1	1. 군무원 기출 질문 & 답변 교육 2. 자소서 첨삭, 서류 작성 방법 안내 3. 개인별 맞춤형 차별화된 답변 안내 4. 일반, 전공, 시사 질문 대비 교육 5. PT 발표, 주제로 작성 교육 (국방부 7급만 해당함)
2	최신 면접 기출 질문 소개, 군무원에 적합한 답변 제시. 간결한 답변 제시.
3	군무원 면접 질문 답변 피드백 1차 (조별 교육, 1대1 맞춤형 교육) 직렬별 전공 기출 질문 & 답변 안내, PT 발표 교육 (국방부 7급만 해당함)
4	군무원 면접 질문 답변 피드백 2차 (조별 교육, 1대1 맞춤형 교육) 일반 면접 (인성, 2024년 최신 시사 질문 & 답변 안내) PT 교육 (국방부 7급 해당)
5	군무원 면접 질문 답변 피드백 3차 (조별 교육, 1대1 맞춤형 교육) 일반 면접 (상황형, 최신 기출 질문 & 답변 안내) PT 교육 (국방부 7급만 해당)
6	면접 점검 교육 (기출 질문 개인별 답변 첨삭, 모의면접 순환식 교육)
7	면접 최종 교육 (최종 모의면접 1차 평가) (면접 복장, 헤어, 메이크업 점검)
8	면접 최종 교육 (최종 모의면접 2차 평가) (면접 복장, 헤어, 메이크업 점검)
+ 추가	추가 면접 답변 피드백, 입장 ~ 퇴장 예절 교육, 이미지 메이킹, 복장 점검.

**총 41개 군무원 직렬 1,426명 최종 합격자 배출!**

행정 군수 정보 수사 사서 차량 전차 전자 통신  
 전산 전기 영상 시설 기계 총포 탄약 인쇄 지도  
 의공 병리 금속 환경 잠수 건축 치무 용접 토목  
 방사선 기상 기상예보 재활치료 의무기록 물리분석  
 항공기체 항공기관 항공보기 항공지원 영양관리 화학분석  
 유도무기 함정기관 (영어, 중국어, 일어, 러시아어 어학 경제)

군무원 5급 ~ 9급 면접 전문 "대장부"

군무원 면접  
41개 직렬  
합격자 배출!



양향근

안녕하십니까?  
면접 강사 양향근입니다.

전) 육군 사단 행정 장교 & 중대장  
전) 육군 사단 신병교육대대 장교  
전) 노량진 공무원 군무원 면접 강사  
전) 직업협회 면접관 양성 교육 강사  
현) 군무원 대장부 면접 1타 강사  
(2017년 ~ 현재)

군무원 면접  
군수직 전문가!



류병목

안녕하십니까?  
면접 교수 류병목입니다.

전) 육군사관학교 졸업 (대령)  
전) 육군 면접관  
전) 육군 학군단 단장  
전) 육군 군수사령부 행정실장  
전) 육군 군수사령부 군수 장교  
현) 서경대학교 군사학과 교수  
현) 경희사이버대학교 교수  
현) 군무원 대장부 면접 교수

군무원 면접관 출신  
명확한 면접 강의!



김민곤

안녕하십니까?  
면접 교수 김민곤입니다.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학사  
국제정치학 박사  
전) 국방부 군무원 면접위원장 3회  
전) 군무원 면접관 7회  
전) 한미 군사회의 대표단  
전) 협성대학교 군사학 교수  
현) 행정안전부 중앙평가위원  
현) 한국 국가정보학회 부회장  
현) 군무원 대장부 면접 연구 교수

군무원 면접  
임팩트 강의!



신은형

안녕하십니까?  
면접 강사 신은형입니다.

육군 사단 행정 장교 전역  
현) 인사이드스피치 연구소 대표  
현) 스피치 학교 대표  
현) 국방전직교육원 진로 강사  
현) 군무원 대장부 면접 강사 (2019년 ~ 현재)

군무원 차량 & 전차  
면접 합격 강의!



유현국

안녕하십니까?  
면접 강사 유현국입니다.

자동차정비 기능장  
국민대학교 공학 석사  
현) 서영대학교 자동차공학과 교수  
현) 인덕대학교 겸임 교수  
현) 군무원 대장부 면접 강사 (2018년 ~ 현재)

군무원 면접  
합격 강의!



김민정

안녕하십니까?  
면접 강사 김민정입니다.

전) 삼성 SDS 인사팀 과장  
전) 자기소개서, 면접 교육 강사  
현) 경기도 일자리재단 취업 강사  
현) 공무원, 군무원 면접 강사  
현) 군무원 대장부 면접 강사  
(2020년 ~ 현재)



# 군무원 대장부 면접 강점

## 1. 전문적인 군무원 면접 교육

- 군무원 면접관 출신 강사
- 군무원 면접 8년, 군 장교 출신 강사
- 현직 대학교수 면접 강사진

## 2. 차별화된 맞춤형 답변 제공

- 직렬 업무에 맞춤형 답변 제공
- 스토리텔링, 구조화 답변
- 개인의 약점을 강점으로 보완
- A~Z 면접 기출, 전공 질문 & 답변 제공
- 개인별 맞춤형 답변 제공

## 3. 면접관 맞춤형 답변 제공

- 면접관이 원하는 핵심 사항 교육
- 꼬리질문 대비 반복 교육
- 자신감, 용기 UP
- 실전 모의면접 반복 교육
- 조별 스터디 통해 반복 연습



# 2024 군무원 면접 합격 과정

- 01 군무원 전문 강사
- 02 기출 질문 120개 답변 제공
- 03 전공 기출 질문 답변 제공
- 04 군무원 면접관 군인, 대학교수 강사진
- 05 조 스터디 편성
- 06 최종 모의 면접
- 07 소수정예 교육
- 08 대면반, 비대면반
- 09 평일반, 주말반
- 10 군무원 면접 8년 전문성!
- 11 개인별 1:1 피드백
- 12 추가 무료 면접 교육 진행

## 군무원 면접 전문 대장부



조별 면접 교육 (담당 강사 1명 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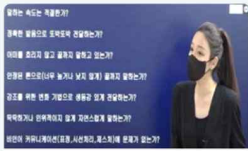
자소서, 서류 첨삭



국방부 7급 PT 교육



전) 군무원 면접관 특강



스피치, 이미지 메이킹 특강



최신 기출, 최신 시사 특강



조별 스터디 편성 (3명 ~ 4명)



입퇴장 예절, 면접 태도 강의



복장, 메이크업, 최종 모의면접 강의

### 2024 군무원 면접 가이드북



군무원 면접 합격 필독서  
자체 제작 p. 250  
최신 면접 교재

담당 강사 1명이 수험생 3명~6명을 집중 밀착 면접 교육합니다.

## 군무원 대장부 면접 강점

- 군무원 면접관 출신, 군 장교 출신, 군무원 전문 강사 출신
- 군무원 면접 8년, 면접 자료 제공, 기본, 인성질문 답변 제공
- 모든 직렬, 전공 질문답변 제공
- 최종 모의 면접 진행, 모든 교육은 모의면접 순환식 교육 진행
- 개인 영상 촬영, 본인 스마트폰으로 교육 내용 촬영 제공
- 대면반 / 비대면반, 평일반 / 주말반, 전문 교육 진행
- 직렬, 직무에 적합한 답변 제공, 개인별 차별화된 답변 피드백
- 소수정예 교육, 1조당 3~6명 편성, 조 스터디 편성
- 네이버 카페 운영, 필요한 자료 공유, 실시간 Q&A

군무원 전문 대장부는 수강생 중심의 전문 교육을 실시하여 면접에서 **최종 합격**을 목표로 합니다.

## 2024 군무원 면접 반 구성 안내

### A반 (엘리버드반)

필합 이전까지 50% 교육 진행  
필합 이후 합격시 50% 추가 교육  
본인 면접일 3~5일전까지 교육  
불합시 50% 환불됩니다.

총 교육 시간: 총 8~9회 면접 교육  
1회당 3시간 + 추가 = 약 32시간  
비용: 45만 원  
1조당 6명 편성

(모든 직렬 5급 ~ 9급 신청 가능)  
(수강생, 비수강생 신청 가능)  
(평일반, 주말반 개설)  
(대면반, 비대면반 선택 가능)

### B반 (정규반)

8월 19일 필합일부부터 신청 가능

총 교육 시간: 총 8~9회 면접 교육  
1회당 3시간 + 추가 = 약 32시간  
비용: 45만 원

1조당 6명 편성  
(모든 직렬 5급 ~ 9급 신청 가능)  
(수강생, 비수강생 신청 가능)  
(평일반, 주말반 개설)  
(대면반, 비대면반 선택 가능)

### C반 (소수 인원반)

8월 19일 필합일부부터 신청 가능

총 교육 시간: 총 8~9회 면접 교육  
1회당 2시간 + 추가 = 약 24시간  
비용: 52만 원

1조당 3명 편성  
(모든 직렬 5급 ~ 9급 신청 가능)  
(수강생, 비수강생 신청 가능)  
(평일반, 주말반 개설)  
(대면반, 비대면반 선택 가능)

### D반 (국 7급 PT반)

국방부 7급 수강생만 신청 가능  
엘리버드반 또는 정규반 신청  
총 8~9회 면접 교육  
비용: 50만 원, 1조당 6명 편성

총 교육 시간:  
1회당 3시간 + 추가 = 약 32시간  
(수강생, 비수강생 신청 가능)  
(평일반, 주말반 개설)  
(대면반, 비대면반 선택 가능)

### E반 육군 스피드반

8월 19일 필합일부부터 신청 가능  
9월 3일 ~ 6일 면접자 대상  
2주 완성 교육반입니다.

총 교육 시간: 총 8~9회 면접 교육  
1회당 3시간 + 추가 = 약 32시간  
비용: 45만 원  
1조당 6명 편성  
(수강생, 비수강생 신청 가능)  
(평일반, 주말반 개설)  
(대면반, 비대면반 선택 가능)

### F반 (아프반)

총 교육 시간: 총 5회 면접 교육  
1회당 3시간 + 추가 = 약 20시간  
면접 인강 제공, 면접 교재 제공  
비용: 28만 원  
1조당 6명 편성  
(수강생, 비수강생 신청 가능)  
(평일반, 주말반 개설)  
(대면반 선택 가능)

### G반 (최종 점검반)

총 교육 시간: 총 3회 면접 교육  
총 4시간 교육  
1회 중간 평가 교육, 최종 점검  
최종 모의면접 2회 → 답변 첨삭

비용: 10만 원  
(수강생, 비수강생 신청 가능)  
(평일반, 주말반 개설)  
(대면반 선택 가능)

### H반 (1:1 집중 교육반)

총 교육 시간: 총 8회 면접 교육  
1회당 1시간 교육. (총 17시간 교육)  
인강 제공 (약 11강) 교재 제공  
비용: 59만 원

(수강생, 비수강생 신청 가능)  
(평일반, 주말반 개설)  
(대면반 선택 가능)

